중국의 쌀산업 현장을 다녀와서

이 재 덕 (한농연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계 쌀 재배면적의 19.5%, 생산량의 31.8% 차지

필자는 최근 한국 쌀시장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쌀산업을 조사하기 위해 농특위에서 파견한 '중국쌀산업 시찰단'의 일원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쌀산업의 생생한 현장의 견학기를 제공함으로써 한농연 회원들께 중국쌀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쌀은 동북3성, 즉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등 우리나라와 기후 및 문화여건이 가장 비슷한 동북지역의 3성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중국쌀은 세계 쌀생산에서 재배면적 19.5%, 생산량 31.8%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동북 3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미와 비교하여 미질이 손색이 없으며 생산비는 13.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수급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증산위주의 쌀생산에서 소비자 지향적인 쌀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흑룡강과 길림성은 쌀, 밀, 대두, 옥수수 등 곡물생산에 적합한 기후 및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는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과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자체 개발한 품종 등 40여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나, 이중 양질의 품종은 13개 정도라고 한다. 동북3성은 토질 및 일조량 등 자연조건과 함께 재배기술이 향상된 결과 단위 면적당 조곡생산량이 중국평균이 ha당 6.3톤인데 비해 흑룡강성이 6.5톤, 길림성이 8.5톤으로 높다고 한다. 2000년도 벼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흑룡강성이 161만ha에 1,016만톤을 생산했으며, 길림성은 47만ha에 406만톤, 요녕성은 415만톤을 생산했다. 현재 동북3성의 쌀주산지는 일제시대에 이곳에 이주한 조선족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으로 떠난 농가의 논까지 임차하여 5ha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었다.

흑룡강성의 벼 재배면적은 현재 수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흑룡강성의

벼 재배면적은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 왔으나 수자원 제약으로 인해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는 점차 둔화되어 최대 재배면적은 200~220만ha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찰단이 만난 흑룡강성의 한 쌀전문가에 의하면 흑룡강성의 최근 벼 재재면적은 160만ha이지만 중국의 농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논을 고려하면 이미 200만ha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80kg당 생산비 11,520원, 우리의 14.2%

중국은 96년 이후 kg당 생산비가 하락추세에 있는데 2000년산 kg당 생산비는 0.90위안으로 80kg당 11,520원, 한국의 평균생산비인 81,371원의 14.2%에 불과하다. 최근의 중국쌀 생산비 하락은 투입재 가격의 하락때문이라고 하며,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국가의 분배과정에서 토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경영규모 확대나 기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 하락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인건비는 중국은 15위안(2,400원)으로 한국의 32,416원의 7.4%에 불과하며, ha당 토지임차료도 토지 국유화가 원칙인 중국은 1,400위안(22만4천원)으로 한국의 2백41만원의 9.3%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비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쌀은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2003년 이후 보호가격이 폐지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하락도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 중국은 남부지방의 벼 생산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초반까지 전국생산량중 95%를 차지했던 남부지역 생산량 비중은 1985년 이후 북부지역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85% 수준으로 하락했다. 화남, 화중, 서남지역 등 남부의 쌀 생산지는 전국 장립종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논 용도를 경제작물 재배지로 전환하여 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부의 쌀 생산지는 동북, 화북, 서북지역으로 거의 단립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동북지역은 2000년도에 1,793만톤의 단립종을 생산하여 전국 단립종 생산량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단립종 소비량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구의 65% 이상이 거주하는 남부지역의 주식은 쌀인데, 농가에서 소비하는 쌀의 80% 정도는 장립종이고 도시인의 소비량중 단립종 비중은 4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부지역 주민의 식량소비량의 45%는 쌀인데 도시와 농촌주민이 거의 단립종쌀을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단립종의 수익률이 장립종보다 높으며 쌀농업의 수익률이 주요 식량작물인 밀과 옥수수보다 현저히 높다고 한다. 또한 남부지역의 쌀소비가 단립종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단

▲ 흑룡강성의 모내기를 마친 논의 모습. 우리 농촌과 다를바 없다.

립종 재배면적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 장립종쌀은 1kg당 생산비는 태국보다 높지만 단립종의 1kg당 생산비(1.14위안)는 미국 단립종(2.04위안)보다 40%나 낮아서 중국의 단립종쌀의 대외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한국 쌀시장 개방압력에 앞장설 것

중국의 쌀 무역은 수출위주로서 연도별 수출량 변동폭이 매우 크며 2000년도 수출량은 296만톤으로 세계 쌀 무역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1996~2001년 동안 연평균 수입량은 33.5만톤으로 식용소비량의 0.2% 수준으로 주로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고급 장립종 쌀이다. 중국쌀의 수출가격은 2000년도 톤당 188.6달러에서 2001년도에는 165.7달러로 12% 정도로 하락했다. 2000년도 장립종 수출량은 212만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71.6%, 단립종은 84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장립종쌀 수출은 강서성 57.4만톤, 안휘성 49.4만톤, 강소성 26.5만톤, 호남성 32.2만톤, 호북성 25.2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단립종 쌀 수출은 요녕성 22.2만톤, 흑룡강성 19만톤, 길림성 13.5만톤, 강소성 12.7만톤, 북경이 6.7만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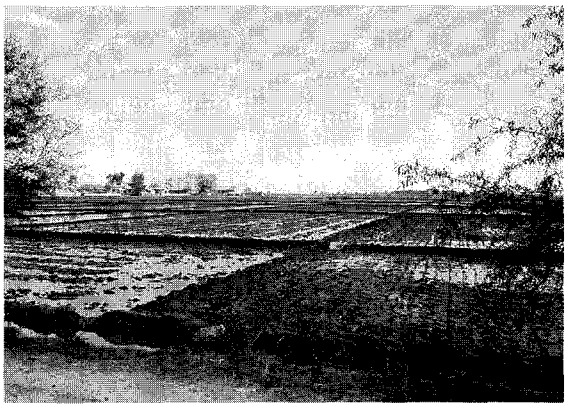
▲ 소포장되어 시중에서 판매중인 중국쌀.

중국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 보호가격제도를 2003년 이후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쌀 생산량의 25% 정도는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하여 나름대로 쌀농가 보호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가격제도를 시행하는 곡물과 가격은 성의 주작물에 따라 다르나 길림성은 옥수수, 흑룡강성은 쌀과 옥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보호가격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보호가격제도가 있었을 경우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물량 이외의 쌀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며 미질에 따라 수취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 판매애로에 직면하면서 흑룡강성에서는 연간 300만톤의 쌀재고량이 증가하는데 재고미 중에는 1999년산도 있으며, 길림성의 재고미 중에는 1996년산도 있다고 성정부 관리가 고충을 털어놓았다. 시찰단이 쌀재고 현황 조사를 위해 흑룡강성의 쌀 저장시설을 직접 방문하고자 했으나 성 정부로부터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중국이 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방출을 확대할 경우 쌀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대외 가격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WTO에 공식 가입하면서 관세화로 농산물 시장개방을 단행한 이후 한국에 대해 경쟁력있는 품목의 수출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관리들은 14억의 전체 인구중 8억명이 농촌인구인 중국은 비농업부문에

서 잉여 농촌인력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농업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서 한국보다 농업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중국은 쌀문제에 관한한 우리와 판이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해야 하는 우리나라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의 쌀시장 개방을 외치는 가장 강력한 위협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실제로 시찰단이 만난 성 정부의 관리들은 유통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다른 성으로 보내는 것보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훨씬 적게 먹힌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한국수출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흑룡강성에서는 추가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될 여지가 있고 길림성에서는 생산조정을 위해 전작대책을 강구할 정도로 이미 중국은 쌀 공급과잉으로 고심하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에 해당) 생산 등 품질면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우리 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은 물론 정부가 국내 쌀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애시당초 경쟁이 되지 않을 중국쌀에 맞서기 위해서 국내 쌀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말고 어떻게 국내 쌀농업을 지키고 소득을 보장해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한농연



▲ 국유화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세분화된 논의 모습.

〈한농연 광고〉

월간 한농연 참여글 모집 공고

한농연회원들의 소식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농정현안과 대책을 분석, 전달하고 있는 「월간 한농연」이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기 위해 '월간 한농연 참여글' 을 모집합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농업정책에 제언, 월간 한농연에 바라는 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공감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고처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우편접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우 138-802)
- Tel : (02)3401-6543 Fax :(02)3401-6549
- Home page : www.kaff.or.kr 자유게시판, 정책제안실
- E-mail : kwak121@chollian.net
- 담당자 : 임준제 대리